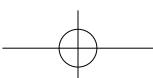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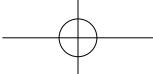


■ 선행학습은 얼마나 효율적인가?

아이의 발달과 관련해 교육에 접근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발달에 앞서 미리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발달에 맞게 적기에 교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발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세 가지 관점 모두 각각 지지하는 학자들이 있다. 세 번째를 지지하는 학자는 없을 거라 여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무위자연론이나 노장사상, 루소, 서머 힐의 널 등이 이 관점을 지지한다. 아이는 걷는 연습을 시키지 않아도 서서 걸을 수 있고, 배변 연습을 시키지 않아도 언젠가는 가리므로 그냥 자연적인 발달에 맡기자는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에게 한글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고 생각해 보자. 다른 아이들은 모두 글을 읽고 이름 정도는 쓸 수 있는데 혼자만 한글을 읽지 못한다면, 아이가 받을 상처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심각한 열등감과 부정적 자아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90퍼센트 이상이 발달에 앞서 미리 교육하는 것을 택한다. 그래서 앞서 누누이 설명했듯이 복수당하는 부모가 된다. 선행학습은 뇌의 발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다음에 살펴볼 결정적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뇌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킨다.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 수십 명, 수백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뇌의 발달과 학생들의 심리, 배워야 하는 교육 내용들을 모두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한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딱 맞추어져 만들어진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맞추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중1이 배워야 하는 내용을 초등학교 5학년이 배우기 위해서는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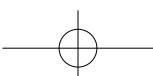
의 심각한 무리를 감수해야 한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뇌도 힘들다. 그래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뇌도 지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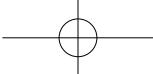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재미없다. 이미 배운 내용이므로 수업 시간에 집중하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는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예습과 복습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효과와 효율은 약간 차이가 있다. 효과는 결과만 따지는 것이고, 효율은 경제성까지 따지는 것이다. 예습과 복습 중에 어느 것이 더 시간이 절약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기억하기 쉬운가? 말할 것도 없이 복습이다. 같은 내용을 공부할 때 이미 교사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공부하는 것과 처음 접하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 등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습은 하루나 비교적 짧은 시간 전에 미리 공부하는 것이다. 미리 공부해서 교사의 설명을 들을 때 이해를 높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습이 아니다. 1~2년 앞서 공부하는 선행학습이다. 우리는 복습보다 비효율적인 예습을 넘어서서 선행학습에 무리하게 매달린다.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인가? 시간은 시간대로 오래 걸리고,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고, 아이의 에너지는 무한대로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일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자녀는 자녀대로 힘든데도 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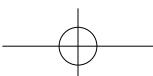
엉뚱하게 나오는 예의 전형이 바로 선행학습이다. 선행학습 하는 시간의 3분의 1만 제때 하는 교육에 투자해도 선행학습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행학습 하는 돈의 3분의 1만 복습하는 교육으로 돌려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행학습 하는 에너지의 3분의 1만 들여도 적기교육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이 뇌에 맞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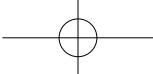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적기교육의 관점이다. 즉 제때에 뇌의 발달과 결정적 시기에 맞추어 가르치는 것이다. 아이가 서서 걷는 발달 단계가 있고, 배변을 가릴 수 있는 시기가 있으며,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때가 있다. 그 발달 시기를 알고 그에 맞추어 서서히 접근해 가야 아이의 호기심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럴 때 아이는 긍정적 정서를 무의식에 쌓게 되고, 그것이 성격으로 형성되어 자신감과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는 아이가 된다.

■ 남과 어울리는 능력은 어릴 때 결정된다

사람이 많은 길거리를 가다가 아이가 넘어졌다. 아이는 엄마에게 일으켜 달라는 것인지 떼를 쓰면서 넘어진 채로 계속 울고 있다. 이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말로 잘 타일러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 이유는 아이에게 독립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여기서 부모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많은 길거리라는 점이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아이가 넘어진 채로 울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





예루살렘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유대인 가족들.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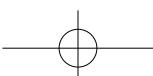
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성을 생각해서, 큰 울음소리에 얼굴을 찡그릴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아이를 일단 일으켜 세워 달래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녀의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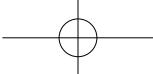
심을 키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내 자식이 중요하므로 사회나 공공의 이익은 배제된다.

아이의 사회성 발달은 만 3세까지가 결정적 시기이다.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이 시기에 발달하기 때문이다. 좌절을 견디는 힘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4세 때 뇌의 변연계(limbic system)에서 완성된다. 아이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호기심을 채워 주고 넉넉하게 감싸 주는 엄마가 곁에 있을 때 이 능력은 효과적으로 길러진다. 아이가 울 때 포근하게 안고 다독여 주고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시기에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가르치면 마음속에 분노가 쌓인다. 이런 스트레스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표출되기도 한다.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거나 꾸중을 들으면 소리를 지른다.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으면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친구와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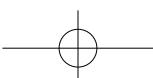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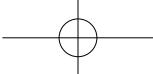
협할 줄 모르고 공격성이 강해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고함을 지른다.

3세 이전이 정서와 사회성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라면, 3~5세는 전반적인 기본 사고력과 인간성, 도덕성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때 예절과 인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평생 동안 좋지 않은 성격과 정확하지 못한 도덕적 판단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성과 도덕성은 특별한 교육이나 하루 이들의 프로그램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길러진다. 이웃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고,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부모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아이는 인성과 도덕성을 배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사소한 일부부터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이에게 그것이 기본적인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대개 네 살 미만의 아이들은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리는 뇌의 기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헤아림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감을 통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 시작이 잘못되면 아이의 사회성 발달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좋은 성격은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로 결정된다. 사회성이 잘 발달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성은 뇌의 전전두엽에서 주로 담당한다. 이 뇌는 만 3세까지 가장 많이 성장한다. 그런데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부모와 이루어지므로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미래의 사회성 발달과 인간관계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들 중에는 아이의 감정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고 대신해 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인식하며,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한다. 아이가 영어 단어 몇 개





더 알고 글을 1~2년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때에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잘못을
사과할 줄 알고, 불쌍한 사람을 동정할 줄 알며,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아이로
기르는 것이다. 책을 줄줄 읽는 것보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